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엡2:4)

◎ 생활지침 ◎

- 1.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 사순절 묵상

세상적인 고통을

참고 견디는 길에 대하여

“내 아들이아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느니라(요3:13). 내 어깨에 너희의 슬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가노니(사53:4) 이는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며 그럼으로써 너희는 인내를 배울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환난을 불평없이 견디낼 수 있으리라.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항상 슬픔과 고통을 견디어 왔다. 그러나 나는 모든 불명예와 수치를 말없이 참아 왔으며,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써 배은망덕의 쓴 잔을 마셔야 했고, 기적을 행함으로써 불경죄로 징계를 받았으며, 가르침을 베풀고도 비난을 받아왔느니라”

“오 주님, 주님께서 평생동안 참고 견디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특별히 순종하실 수 있겠나이다(요5:30). 주님께서 보여 주신 인내를 본받아서 죄인인 저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모든 괴로움을 참고 또 육신 생활의 무거운 짐을 인내로써 짊어지고 가지 않을 수 없나이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저와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거룩한 길을 보여 주셨사오니 당신께 드려야 할 감사는 형언키 어려울 만큼 크고 넘치나이다. 아, 만일 당신께서 영광스런 모범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당신께서 친히 보여 주신 산 교훈이 위대한 빛을 발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토마스 아 켐피스 지음)

『그리스도를 본받아』 중에서

“군복음화의 견인차” 육사 세례식

**22일(토) 오후2시 우리교회주관 육사교회서
당일 12시 교회당 앞에서 육사행 버스 출발**

올해 육군사관학교 세례식이 서울교회 주관으로 3월 22일(토) 오후 2시 사관학교내 육사교회(담임목사 안상기)에서 거행된다.

이번 세례식은 97년도 입학한 57기 육사생도들의 입교(入校)와 함께 열리는 것으로 신입생도 70명을 비롯 재교생도 10명, 육사교회의 신우와 학생 35명 그리고 유아세례 5명 등 모두 130여명이 합동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

이날 세례식은 오후 1시 세례자교육에 이어 2시부터 드리는

예배 중 성찬식과 아울러 열리게 된다.

세례식 후 2부행사로 식당에서 친교 및 다과회가 진행된다.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식 집례 뿐 아니라 예배 진행과 친교·

다과회도 주관하게 된다.

찬양대원을 비롯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당일 12시 서울교회당 앞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군복음화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육군사관학교 세례식은 1993년부터 해마다 우리 교회에서 주관해 오고 있다.



▲ 사진은 작년 육군사관학교 합동세례식 후 가진 성찬식

민족교회를 위한 봉사자가 되자

제 11학기 목회자세미나에 수고하실 분 모집

제1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가 3월 24일(월) 개최된다.

전국의 목회자들이 참가하여 한국교회갱신의 방안을 모색하는 목회자세미나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봉사자들의 힘으로 원활히 진행돼 왔다. 이

번 학기 목회자세미나도 식사준비를 비롯 차량관리, 안내 등 각 분야에서 수고하실 봉사자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국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할 일	요일, 시간, 봉사할 곳	필요한 인원
식사 재료 구입	금요일 혹은 토요일 오전	두 분 (운전 가능한 분)
강의안 편찬, 제본	토요일 오후 3-5시, 사무국	여집사님 두 분
교재 및 유인물 준비	주 일 소망부 집회 후, 소망부실	모세선교회원
식사 준비	월요일 오전 6시 - 10시, 별관	한나, 에스더 회원
집무리고 이동하기	월요일 오전 9시 - 11시, 사무국	남자성도 다섯 분
식탁, 강의실 의자 설치, 방송실 점검	월요일 오전 10시 - 12시, YMCA	남자성도 스무 분
차량관리(Y정문, 지하, 양지 아파트)	월요일 오후 1시 - 3시, 5시 - 6시	남자성도 여덟 분
안내(현관, 엘리베이터, 강의실)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안내위원 열 두 분
등록 및 접수	월요일(첫 두주) 12시 - 오후 4시, YMCA	열 두 분(3인 1조로 4조)
테이프, 서적 판매 및 관리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여집사님 네 분
교회에 남아서 듣는 일(전화안내)	월요일 오후 1시 - 4시, 사무국	여자성도 한 분
배식, 음료수 대접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한나, 에스더 회원
교재 및 유인물 배부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 3시, YMCA	모세선교회원
식탁, 접수탁자, 교회물건 철수	월요일 오후 3시 30분 - 4시 20분	남자성도 열 분
강의실 의자 철수, 청소, 정리	월요일 오후 5시 30분 - 6시, YMCA	남자성도 스무 분
철수한 교회 물품 정리	월요일 오후 4시 - 7시, 사무국	남녀성도 각 세 분씩

창세기
강해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창세기 48장 21 - 22절)

이종윤 목사

죽음을 목전에 둔 야곱이 요셉에게 한 말은 그의 체험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니”(21절).

하나님께서서는 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야곱의 생애에 여러 차례에 걸쳐 주셨습니다(창28:15, 31:3, 31:5, 35:3, 48:2).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전생애동안 약속대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대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간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처음 야곱에게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을 주셨을 때 그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믿음 좋은 아버지인 이삭 밑에서 성장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체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집을 떠나 도망가는 신세가 된 야곱은 자기 앞에 닥쳐올 미지의 세계에 대해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떨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온갖 고통과 외로움, 열악한 환경에 의한 두려움으로 떠는 이들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야곱도 두려워하고 놀랐습니다.

하늘을 지붕 삼고 대지를 침대 삼고 돌을 베개 삼아 희망도 미래도 없이 고독에 울고 있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에게 복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하지 못하고 친구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까? 복음을 거절한 이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입니다. 주님을 믿고 생명의 주로 따른다면 우리 환경이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

리와 함께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는 곤고한 중에 있었습니다. 20년간 외딴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사 아내들과 양떼를 얻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때에 서쪽에는 그를 죽이려는 에서가 있었고 동쪽에는 노한 라반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사이에 끼여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시고 추격하는 라반에게 야곱을 해하지 말고 심지어 악한 말도 하지 못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압복강 나루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시고 에서의 마음을 바꾸사 화해토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로부터도 야곱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헬이 죽었을 때에도,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온 지경에 기근이 닥쳤을 때에도 그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을 멸망케 한 것들 즉 적그리스도, 전쟁, 기근과 지진, 핍박(마24:5-10)이 있으나 예수님께서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마28:20).

3.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대로 항상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하나님을 빼고 무엇을 말할 수 있었습니까.

라반의 추격과 에서의 공격에서 하나님의 보호로 안전하였던 야곱처럼 우리도 이같은 고백과 간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과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실패하고 배신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야곱은 비로소 뒤를

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고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 볼 때 시험과 고난 받았을 때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던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아프고 괴로운 순간들이 바로 가장 고귀하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요셉, 브나새, 에브라임을 보면서 고난의 날이 올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말라고 권고하면서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자신의 후손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빌고 있습니다.

임종의 날이 가까운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였던 날들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부모되는 성도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믿게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 순례자 컬럼 ✦

“교회의 힘”

교회의 힘은 가건적인 건물이나 물량적인 숫자 또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식, 무력, 경험, 권력과 같은 것들로 쟁 수는 없다.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서 하나의 힘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랑스럽다기 보다는 오히려 비참한 생각마저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에 힘이 있다면 그것은 신령한 힘이고, 거룩한 능력이어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힘은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얻어지는 힘이고, 기도의 힘이며, 진리되신 복음의 힘이어야 한다. 성령의 권능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고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며, 복음의 능력으로 어둠을 밝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진정한 힘을 나타낼 수 있다면 주님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바르고 깨끗하게 수행할 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에 거룩한 힘을 주실 것을, 그리고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생활 속의 단상

“수동이가 서당에서...”

김권집(집사, 고등부 교사)

나의 고등학교 시절엔 조회라는 것이 있었다. 조회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교장 선생님의 훈화시간이었다. 그런데 때때로 교장 선생님께서 출타하시면 중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대신 훈화를 하셨다. 그것이 아마 서너 차례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대신 단에 서실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수동이 이야기’였는데 기억을 더듬어 그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야기의 배경은 옛날 서당. 공부를 잘하여 서당의 대표급이었던 수동이와 그의 친구들에겐 오늘날로 말하면 자율학습시간 같은

기회가 주어졌다. 어떤 친구는 동양화를 멋지게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붓글씨를 쓰고... 모두들 제법 그럴듯한 작품들을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진작 우리의 수동이는 자기의 작품을 만드는 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하는 일을 돕거나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챙겨주는 데에 정신이 없었다. 물을 떠다 주고, 도구들을 집어 주고, 잘못된 것이 없는지 보여주며 흐트러진 것을 바로 잡고 이것저것 챙겨주느라 땀을 흘렸다. 덕분에 친구들은 자신들의 실력을 맘껏 발휘하며 훨씬 수월하게 작품을 완성했다. 이 광경을 우연히 보게 된 수동이의 어머니는 너무도 크게

실망을 했다. ‘내 아들이 무척 잘난 줄 알았는데 고작 심부름꾼이었다니!’

중학교 교장 선생님은 고등학교 조회시간에 단에 서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 이야기를 되풀이 하셨다. 나는 속으로 레파토리가 그렇게 궁하신가 하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요즘은 새삼스럽게 그 선생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우리 사회엔 진정 이런 인물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고,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기에 민첩하고, 더불어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 그러한 지도자 말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섬김의 도리에 기초해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주신 은사를 잘 발휘하도록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지도자일 것이다. 또한 우리들 각자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수동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광야의 소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박귀환 목사
(1·2교구, 중등부 지도)

나라 전체가 떠들썩하다. 언제 깨질지 모를 위기감마저 든다. 노동법 날치기 통과 사건으로 노동계의 파업이 계속되더니 한보사태와 연이어 터지는 부정 부패의 양상이 전 세계 앞에 부끄럽게 노출되고 있다. 과연 어디서부터 손을 대어 이 일을 수습해야 할지 누구도 모르는 형편에 처해 있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망신창이가 된 이 나라, 이 사회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한 배에 탄 공범자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구약시대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때에 우리들에게 들려옴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요청하심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우

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자 “네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과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사1:23).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 자가 인간에게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발하며 서로 연락을 취하나...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미7:2, 3).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절망의 끝은

곧 소망의 시작이요 소망의 말씀은 들려진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암5:14).

예언자는 세상을 향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언하면서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용서를 간구한다(미7:18, 19).

아, 자기 자신의 죄악과 동시에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죄악을 깨달으면서 예언자가 되었던 이사야처럼(사6장) 이 민족, 이 공동체의 죄악 속에 내 자신이 함께 죄인임을 깨달아 진정 회개함으로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자리에 들 수 있다면...

▶ 제 8차 김치 신학세미나를 준비하며 ②

김치신학세미나 참가국

김치신학세미나는 문화권별로 현지의 대표적인 목회자와 교계 지도자를 초청해 개최하는 세미나이다. 그동안 김치세미나에는 1차로 동구권 목회자가 참석한 이래 중국어권, 힌두교권, 아프리카, 러시아, 모슬렘권 그리고 작년에 오세아니아와 그 주변국 등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른 권역의 대표자들이 참석하였다.

올해로 제 8차를 맞는 김치신학세미나에는 네 팔,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미얀마 등 아시아권 5개국의 대표자가 참가한다.

그간 참가한 나라는 다음의 표와 같다.

구분	실시일	권역	참가국
1차	1990. 11. 2. ~ 11. 11.	동구권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소련, 유고슬라비아
2차	1991. 5. 28. ~ 6. 6.	중국어권	중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태국, 필리핀, 미국, 영국
3차	1992. 5. 26. ~ 6. 3.	힌두교권	인도, 스리랑카, 불가리아, 일본
4차	1993. 5. 25. ~ 6. 3.	아프리카	보츠와나, 브룬디, 카메룬, 차드, 에티오피아, 가나, 가봉, 케냐,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르완다,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5차	1994. 5. 25. ~ 6. 3.	CIS	러시아
6차	1995. 5. 30. ~ 6. 9.	모슬렘권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7차	1996. 5. 20 ~ 5. 29.	오세아니아권	호주, 뉴질랜드, 서사모아, 피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8차	1997. 5. 20 ~ 5. 29.	아시아권	

▶중아시아에서 온 편지

이곳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슈마 머난드 베게 푸르바르 와체슈마이 파르브 호워히드 부드”

“너는 물 던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이사야 58:11).

박종상 선교사

위와 같은 축복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마른 영혼에게 생명수의 강을 베풀어 주시듯, 구원의 찬송이 이곳의 산과 골짜기마다 울려 퍼지고 갈급한 심령들에게 성령의 단비가 흠족히 내리길 간구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이들의 눈에는 좌절과 절망뿐입니다. 40세만 되어도 주름이 가득한 난민들의 모습에선 기쁨이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곳의 엄격한 이슬람 법에 따라 사람들을 힘으로 다스리는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처럼 전갈로 나라를 다스리는

집단이 나타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성의 인권도 최악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구타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성들의 외부활동은 제한되어 있고 여선교사들의 외부활동도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은 더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선지자처럼 이곳의 미래와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현지 지도자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제목

1. 교통 중에 울부짖는 이들의 간구를 들으사, 주여 진노를 거두소서.
 2.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형제들의 믿음이 더욱 굳어지게 하소서.
 3.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현지 지도자들을 세워주소서.
 4. 이 민족을 위하여 수고하는 주의 일꾼들을 보호하시며 하나된 마음과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소서.
 5. 언어 공부와 믿음의 형제들을 양육하는 일에 열매가 풍성히 있게 하시며 동료선교사들과 잘 협력할 수 있게 하소서.
- 여러분의 능력있는 기도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미가엘찬양대와 함께 21일(금) 오후 7시 30분부터

미가엘찬양대(지도 이순환 목사)에서는 3월 21일(금)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2층 예배실에서 찬양집회를 갖는다. 금요심야기도회에 앞서 가지는 이 집회는 찬송가와 복음성가 등 다양한 종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특별히 중·고등학교생과 대학생, 청년 등 청소년과 젊은이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전교인 체육대회

5월 5일(월) 잠실실내체육관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화합과 복음 사역에 대한 결의를 다지기 위한 전교인체육대회가 오는 5월 5일(월)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준비

위원회는 이 날의 행사 계획 및 진행을 위해 조직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이 날의 행사는 교구별 대항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옥탑층에서의 사랑의 나눔

2월과 3월 16일 현재까지 봉사자를 위한 주일 점심식사를 제공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2월 2일: 이관규 집사 · 양인수 집사
- ▶ 2월 9일: 이남호 장로 · 김세재 집사
- ▶ 2월 16일: 오정수 장로
- ▶ 2월 23일: 김숙자 집사
- ▶ 3월 2일: 이순환 목사
- ▶ 3월 9일: 홍정호 장로 · 김광신 장로
- ▶ 3월 16일: 정무균 집사

社告 촉탁기자 위촉

보다 생생히 교회내 각 부서의 소식을 전할 <순례자> 촉탁기자가 새로 위촉되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탁아부에서 소망부까지 모두 12분의 기자들은 각 부서에서 활동하면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새 소식을 <순례자>를 통해 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 탁아부 최재춘 ■ 유치부 황지영
- 유년부 유숙인 ■ 초등부 조대영
- 중등부 홍영조 ■ 고등부 정규호
- 대학부 노애리 ■ 청년부 손지희
- 장년부 이상호 ■ 소망부 박두영
- 사랑부 이강인 ■ 새가족부 김찬진

* 16일(주일) III부 예배 후 고등부교사실에서 촉탁기자 모임을 갖습니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기독교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제 1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신청 접수 ■

- 제 11학기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1997년 2월 10일(월) ~ 3월 24일(월)
- 제출서류 / 본원 소정양식
- 등록금 / 한 학기(10주)에 만원
- 신청서 접수 및 수강 안내 / 한국교회강신연구원
서초구 반포동 737-3 (☎ 517-7651 ~ 5 FAX, 512-1225)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사순절 기간동안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2.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
3. 제 1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와 제 8차 김치세미나를 위해
4. 육사세례식과 군복음화를 위해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